

5·18 계엄군 지휘관 첫 증언 '침묵의 카르텔' 깬다

호남 최대 정론지 광주일보는 2017년 정유년에도 광주·전남의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았으며, 성과를 공유했다. 지역 어른이자 시대의 사표(師表)인 고 홍남순 변호사의 흔적을 찾아갔고, 여전히 묻혀 있는 5·18의 진실을 알리고자 다가섰으며, 촛불을 든 시민들과 금남로를 누비며 그릇된 정권의 몰락을 앞당겼다. 호남 차별의 상징인 호남고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완공을 촉구하고, 도시공원 등 곳곳에 들어서는 고층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바람직한 도시미래상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갔다. <편집자주>

1 호남순 변호사 가옥 5·18사적지 지정 및 표지석 설치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보도됐던 광주시 동구 공동고(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의 5·18사적지 지정 소식은 올해 광주지역의 훈훈한 뉴스였다. 본보는 '광주정신 모태 홍남순 자택 폐가 방치' <광주일보 2016년 10월 14일 6면> 제목의 보도를 시작으로 홍남순 가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광주시는 지난 9월 홍 변호사의 가옥 5·18사적지 제29호로 지정·고시했다. 5·18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과 회의 등을 한 사랑방이었고, 구속자 석방 논의와 관련 문건 작성 등이 이뤄진 곳이다. 광주시는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5·18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설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방치돼 있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은 광주일보의 지속적인 보도에 힘입어 광주시 5·18사적지로 지정됐다. 지난 8일 홍 변호사 가옥의 5·18사적지 표지석 제막식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2 5·18 진상규명 건인차 역할 특독

광주일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올해 두 차례 계엄군 지휘관의 증언을 최초로 이끌어냈다. 11공수여단 소속 지대장 윤모 전 중위와 3공수여단 소속 신순웅 전 소령이다. 이들의 증언은 계엄사 등 신군부의 광주항쟁 조작사실을 밝혀내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됐다. 윤 중위의 증언을 통해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 상황을 비로소 생생히 알 수 있었다.

또 월남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대거 광주에 투입됐다는 점을 통해 계엄군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광주시민들을 제압했는지를 밝혀내는 단초를 제공했다. 신 소령은 옛 광주교도소에 주둔하며 접근하는 시위대 차량을 향해 사격하고, 숨진 3명을 암매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용기있는 고백은 지난 37년간 견고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데 일조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14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주관으로 광주시 동구 너릿재 터널 광주 방면 도로에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을 찾기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3 문재인 정부 호남인재 중용 산파역

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광주·전남 등 호남인재 중용은 광주일보의 계속된 보도가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정부 10년 동안 호남 인사소외를 끊임없이 지적한 데 이어 대선이 펼쳐진 올해에는 각종 기사와 칼럼을 통해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호남인재 중용을 압박했다. 그 결과 대부분 대선후보들은 호남인재 중용을 공약했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다는 평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쓴 데스크칼럼을 통해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호남인재들은 푸대접을 넘어 노골적인 차별을 받아 왔다"며 "고질적인 호남 인사 차별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후보는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인사부터 구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호남 총리론'까지 시사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호남 차별을 없애고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글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상기시키면서 당선 후 공약 이행을 압박했다.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의 인터뷰와 유세 등에서 '호남인재 중용' 관련 발언이 나오면 이를 지면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고위직뿐 아니라 중·하위직 인사에서도 호남인재 중용이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 무안공항 활성화·KTX경유...SOC 예산 확보 성과

10년 이상 표류해 온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새 정부에서 확정됐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통합 등을 통해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조했고, 결국 대선 공약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처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해졌다. 이에 광주일보는 또 다시 호남선 KTX 2단계 노선 조기 확정을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반응을 잇따라 보도하고,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수 차례 게재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선 KTX 2단계 노선 노선에 대해 '무안공항 경유'로 뜻을 모았고, 결국 정부도 호남선 KTX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를 확정했다.

5 바람직한 도시미래상에 대한 공감대 마련



2010년 이후 과도한 고층·고밀화에 따라 광주의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됐다.

광주일보는 어느 매체보다 서둘러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 공원에 무분별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되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도 했다. 또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시 외곽 임야나 전답 지구 단위계획 등으로 인해 광주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층·고밀화에 대한 우려를 기

사화하고, 광주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고층·고밀화를 제어할 수 있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등에 나섰다. 공기업 LHH가 지역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점, 투기장으로 변한 아파트 신규 분양현장을 취재하고 허술한 행정을 각각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연수원·요양병원 호텔

변경 가능

- 구례 산동 온천지구, 4층, 대형 모텔
- 대 573평, 건 683평, 객실 58개
- 전체 올수리, 연3억 이상 순수익가능
- 매 18억, 주인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몰락,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연금발전소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당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